수소연료전지 산업 거점 구축에 행정력 집중

전북도, 올해까지 196억원 규모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 센터 · 장비 구축 마무리…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북도는 연료전지 보급확산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총 196억원을 투자하는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이하 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센터는 지난 2021년 8월 연면적 1,332㎡ 규모로 준공됐고, 올해까지 총 76기의 장비를 구축하면 사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발전 기술이다.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 배터리와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반응 중 발생된 열은 급탕 및 난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고분자연료전지는 고분자를 전해질(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사용해 수소이온을 투과시켜 전기를 얻는 연료전지다. 보통 저온(60~80℃)에서 작동하고 구조가 간단해 수송용, 가정용, 모빌리티 등 응용범위가 다양하다. 현재 수소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이기도 하다.

모든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고가의 평가·분석 장비 구축, 장시간 평가, 평가인력 고용 등 중소·중견 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 센터는 2021년말까지 갖춰진 장비 57기를 활용해 작년 20곳 이상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5kw~10kw 규모별 연료전지 스택 평가, 시스템 효율 측정, 소음 특성 분석 등 연료전지 시험평가 지원 서비스를 수행했다. 또, 4곳의 중소기업 '가온셀, 테라릭스, 비나텍, 에이치투시스템즈'이 2022년 1월부터 입주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수혜 기업들은 입을 모아 추가적인 평가 및 분석 설비 구축 없이 센터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 제품의 핵심부품 개발 및 장기 실증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 대규모 평가장비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품 신뢰성 향상을 지원해 연료전지 시장 확대와 국내 유관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센터가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혁신거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닭 계열화사업자 평가… 도내 우수등급 4곳 선정

하림 · 사조원 · 참프레 · 동우

계열화사업 수준 향상 · 사육농가 안정적 운영 도모

전북도는 2021~2022년도 닭 계열화사업자 등급 평가결과 우수등급에 도내 업체 4개소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계열화사업자 등급 평가는 계열화사업자의 운영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사업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 전반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계열화사업 수준을 향상해 계약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계열화사업자 등급 결정은 사육농가와의 계약 공정성, 법 위반 및 준수 여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협력 노력의 정도,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 계약농가 만족도 조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위에 따라 상위10%까지 우수, 11%~20%는 양호, 21~40%는 보통, 41% 이하는 미흡 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전국의 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총 89개소(닭 73, 오리 16)였으며, 닭 계열화사업자 우수등급에 전국 7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도내에서는 하림, 사조원, 참프레, 동우 등 4개소가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그 밖에 양호 등급 1개소(13%), 보통등급 2개소(12%), 미흡등급 1개소(4%)로 평가됐다.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2개소(33%)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계열화융자사업 인센티브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30억 원 한도로 우수에서 보통등급까지 연리 0%, 미흡등급은 1% 지원 조건에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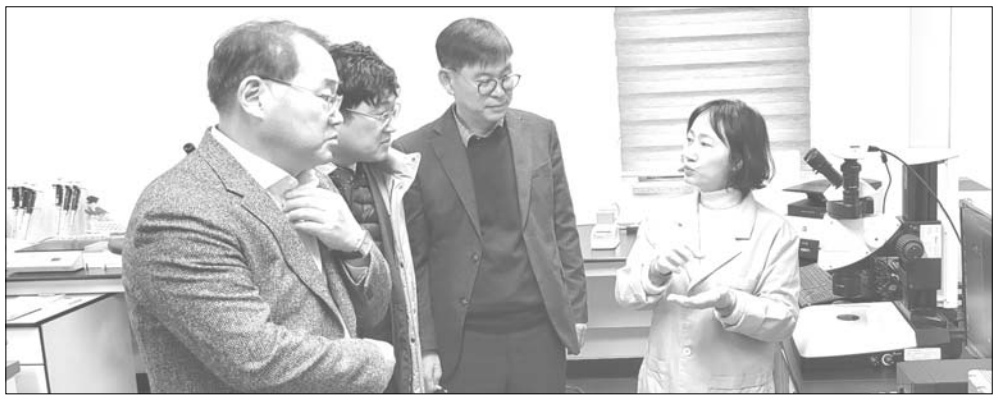
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를 공개해 계열농가는 평가가 우수한 계열화사업자를 선택? 계약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 또한 수급불안 해소 등 사업전반 경영안정으로 가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위해 도에서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자금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책사항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경제부지사, 축산연구소 찾아 현안 살펴

주요사업 추진 현황 청취

사육 · 실험연구시설 등 시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전북도 축산연구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전북도 축산연구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축산연구소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고능력 한우 개량을 위한 사육시설과 실험연구 및 농가 교육 시설 등을 시찰했다.

특히 고능력 수정란 생산 위한 생명공학연구실과 한우 개량의 중추 시설인 채정실을 방문해 수정란 체외수정과 배양, 우량 정액 생산 과정 등을 살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그간 축산연구소는 한우 보증씨수소 5두 배출, 매년 고능력 우량 수정란 600여 개 생산·공급 등 전북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며, "지속적 한우 육종·개량으로 한우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기술 개발, 보급 확대로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한우, 칡소 등 480여 두의 가축을 보유하고, 한우육종센터,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 칡소 개량,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축산농가 전문교육 등 가축개량과 농가 교육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 '전북벤처투자포럼' 개최

지역의 벤처투자 주체 간 정기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와 창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소통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벤처투자포럼은 수도권 및 지역 내 투자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전라북도 창업기업 소개와 투자정보 교류, 네트워킹 등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기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16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수도권 유명 투자사 및 도내 창업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바이오차(대표자 최한국)'의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발표, 군산에 소재한 유망 창업기업인 '서주스틸(대표자 임문택)'의 기업투자설명(IR발표),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김윤형 실장의 재단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참여 투자사별 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가치투자 배준학 대표는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과 민간투자사, 선배기업들이 집적화된 스타트업타운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국 볼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맞손'

농생명 ·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국제분야 협력 기대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과 16일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박우성 본부장, 전북도국제교류센터 김대식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전북도 농생명과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제분야 협력 및 정보공유,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내에서의 협력방안 강구 및 협업에 합의했다.

이은미 원장은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도내 농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센터장은 "전북의 최강점 중 하나인 농생명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관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 평생교육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아침마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워 빛, 빛, 빛" "스피치 스타일"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낭송지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